

「栢樹歌」研究

徐 在 克

物叱 好支 栢史
 mir + tjo:hi co:s
 물스 도히 잣

秋察戶 不冬爾 屋支墮米
 kəsər antiri okaritimaj
 ㄱ술 안드리 오가리디매

汝於多支 行齊 教因隱
 nətahi njəcjə hejsin
 너다히 녀져 히신

仰頓隱 面矣 改衣賜乎隱冬矣也
 utrwəcosən arp'ej kəsəjsjaontəjja
 올워조슨 알띠 가시샤온디야

月羅理 影支古 理因 淵之叱
 təri ərhiko tasən mosajt
 드리 일히고 다슨 모셋

行戶 浪 卬 阿叱沙 矣以支如支
 njər mirkjər asa kic'itəhi
 념 물결 아샤 그치드히

兒史沙叱 窠阿乃

cissa + p̄rana

쫘사사 브라나

世理都 || 之叱逸烏隱第也

nurito cicirontja

누리도 지즈론다

後句亡

(1) 物叱 = 을人

「物」은 *m̄iust(中國 上古音)→m̄iust(同 中古音)(明母; 物韻 合3)¹⁾로 서, 16世紀 訓蒙字會(初刊本. 以下 同)「물」로 實現됨을 볼 때, 「물」[衆]과는 區別을 要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物」字의 音과 語意를 本來的인 것으로 보려는 터이다. 周禮 春官雞人의 「掌共雞牲辨其物」(注: 謂毛色也)라든가, 同 夏官校人의 「凡軍事物馬而頒之」(疏: 物即是色) 따위를 보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物色」(名詞)이란 말의 根源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藤堂氏(漢字語源辭典)도 「物之本訓 牛之色也」라고 한 朱駿聲의 判斷을 좇고 있으며, 「文」字와의 對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어러가지 빛깔(무늬)」을 뜻하는 것이라 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물들다·물들이다」의 「물」은 實은 借用語 「物」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15世紀 國語에서 몇 例를 들어보자.

물드러 시술 거시 업더라(點染無滌盪) <杜詩諺解 初: 24: 38>

거므니 물드러 명마론디 아니라 <楞嚴經諺解 10: 9>

흐 머리 실 물드름 곤하야 <金剛經三家解 3: 46>

「物」字가 쓰인 곳은 安民歌와 擘星歌 및 普賢十願歌의 恒順歌 등인데, 그 가운데 恒順歌의 「丘物叱丘物叱」을 本歌와 比較할 때 發音

(1) 漢字音은 可能한 限 藤堂明保氏의 「漢字語源辭典」과 其他 同氏 所著의 것을 따른다. 以下 同.

面에서는 分명한 一致를 看取할 수 있다.

그러면 「物叱」의 「叱」에 대해서 言及키로 하자. 「叱」은 前日⁽²⁾ 機能別로 分類한 바 있거니와, 本項의 것은 主語 다음에 오는 플러스 連接으로서 高麗 廣修歌의 「法供沙叱多奈」에서 그 命脈을 찾을 수 있고, 15世紀 國語에서

그릿 혼 조초 향야	〈釋譜詳節 6:8〉
다운 업스니	〈法華經諺解 7:75〉
王郎이 슬픔 업시 보르느니	〈杜詩諺解 初:21:25〉
오늘날 荔俳삿다	〈樂學軌範 動勳〉
	〔以下 引例 略〕

과 같이 그 殘形을 찾을 수 있다. 즉 이런 경우 「叱」은 閉塞音으로서가 아니라 呼氣의 中斷으로서 休止符號로 쓰인 것이었다.

(2) 好支=도히

「통다」의 語幹에 副詞接尾辭 「-이」가 붙은 것이다. 즉 「好」를 訓讀하고 「支」를 音讀한 것이라 본다. 「支」는 鄉歌에서 語幹末音, 補助語幹, 副詞接尾辭 등으로 쓰였는데, 그 音이 주로 *hi, *-i로서⁽³⁾ 鄉札 中에서도 比較的 많이 쓰인 축에 든다. 「支」의 音價에 대한 筆者의 詳論은 前稿로 미루거니와, 上古音系의 ki>xi>hi(또는 有聲音間의 i)로 鄉札에까지 變遷되었고, 그것이 13世紀의 鄉藥救急方에서는 「薯蕷」를 「𠵼支」(*mahi <마하>)로 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도히」의 15世紀語는 다음과 같다.

부텃 功夫에 도히 올라가사	〈釋譜詳節 9:3〉
도히 잠드롭더니	〈蒙山法語 17〉
미나라를 도히 너교몬(美芹)	〈杜詩諺解 初:7:13〉
두들머리를 도히 向하야(好向岸頭)	〈金剛經三家解 2:49〉

(2) 拙稿, “讀善婆郎歌 研究”, 新羅伽伽文化, 第3輯(大邱:嶺南大學校 新羅伽伽文化研究所, 1971), pp.49-52.

(3) 上掲 拙稿, pp.28-32 참조.

俞昌均, “鄉歌의 「支」字 表記에 對하여”, 蔽菴 池憲英先生 華甲紀念論叢(大田:同 刊行會, 1971), pp.557-582에서는 gi로 推定함.

(3) 栢史=잣

「栢」을 訓讀하고 그 末音を 「史」로써 表記한 것이다. 解讀者에 따라서는 「史」를 主格까지 包含된 *si 로 보기도 하나, 文脈으로 보아서도 主格보다는 主題格 「隱」程度가 적당하겠는데, 노래임으로 해서 省略한 것 같다. 그것은 다음 第二句 「秋察尸」 다음에도 栢이 表記되지 않았음을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간다.

「史」는 *siæg→siei(疎; 止 開2)로서 鄉歌에서의 實現範圍는 *-s, *si, *sja, *sɐ 등으로 보이는데, 本項은 *-s 에 해당된다. 「史」의 添記는 또한 「잣」의 「ㅅ」이 音節末에서 摩擦되었으리라는 推測을 容納한다. 여기까지 本句節을 整理하던 「물 좋이 잣」 즉 「物色 좋게 잣나무(는)」이 된다.

(4) 秋察尸=ㅁ술

祭妹歌에는 「秋察」, 高麗의 請轉歌에서는 「秋察羅」로 되어 있다. 여기의 「尸·羅」는 다같이 「ㅁ술」의 末音添記인 것은 사실이나, 「尸」가 si 아닌 r 을 取하게 된 데는 이렇다 할 確證이 없다. 만일 *thier (「尸」의 上古音)의 末音이 定着되어 쓰인 것이라면 오늘날의 si(尸)는 後代 中古音의 影響으로밖에 볼 수 없겠는데, 그러나, 鄉札의 「尸」만으로는 當時의 「尸」音의 全貌라고 믿기는 어렵다. 아마도 「알(歹·夕)」의 古文 「尸(戶)」의 略體인 듯한 생각이 든다.

여기 「察」*ts'ät→ts'et(初; 黠 開2)이 「ㅁ술」에 使用된 데는 鄉歌 表記者들에게 再三 感歎할 程度다. 그것은 「察」의 讀訓이 「술필」로서 그 讀訓의 頭音이 「察」의 原音에 가까운 摩擦音으로서 c'er/ser의 近似値를 보여 屢과 同時에 讀訓의 末音도 또한 r 로 끝나 있는 點으로 보아 細心한 配慮가 있었던 것 같다. 勿論 古地名에서 흔히 보는 바의 s/ts(c)/ts'(c') 등의 互用된 例로 보면 一種의 原音素를 設定할 법도 한 일이나, 다른 字로써 ser을 充分히 表記할 수 있는데도 不拘하고 「察」字를 썼다는 데는 「술필」의 影響이 큰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秋」 하나로 表現의 滿足을 못해서 「察」을 덧붙이고, 거

기서 다시 「尸·羅」 따위를 添記해야만 되었다는 것은 鄉札의 鄉札된 하나의 特質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羅」는 訓蒙字會 其他에 「라」로 되어 있어, 鄉歌의 여러 곳에서 ra로 읽혀졌음과 符合된다. 다만 「秋察羅」·「月羅理」 등에서는 聲母 r만을 反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 「マ술」로 標記함은 이 地方의 方言音韻史에 의거한 表記로서 中部方言 「マ술」의 不當함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5) 不冬爾=안드리

「爾」字는 耆婆歌에서 「咽鳴爾」, 擘星歌에서 「八切爾」로 각각 語末에 쓰였다. 本項도 그와 같이 處理한다. 「爾」를 다음 項의 「屋支墮米」와 붙여서 「가깝다〔近邇〕」의 語幹으로 訓讀한 일도 있었고, 「爾」를 「이울다〔枯樸〕」의 「이」로 音讀한 試圖도 있었거니와, 前者는 文意上의 盲點을 內包하게 되고, 後者는 「이불다」(15世紀는 「이불다·이울다」並用)의 「비」의 存在를 忘却한 處理가 되고 말았다. 容或 「爾」를 「너」(漢字에 해당 音이 없기로)로 訓讀을 해서 假借한다 해도 如前히 文脈이 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本項은 「不」을 「안」(〈讀訓「아니」〉)으로 訓讀하고, 「冬」을 「들」로 읽고, 거기에 「爾」가 「이」로서 音讀된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 즉 否定副詞 「안」系 語辭는 대략 다음과 같이 훈어볼 수 있다.

新羅의 鄉歌 몇 首(8世紀)에서는 ① 不冬爾, ② 不喩, ③ 安支 등 3種類로 表記되었고, 高麗의 普賢十願歌(10世紀)에서는 모두 「不冬」로서 네 군데 쓰였다. 또 雞林類事(12世紀)에서는 「安理·安里」로 聽取되었고, 大明律直解(14世紀)에서는 「不冬·不徐」이 並用되었다. 그리고, 15世紀 國文에서부터 「아니」로 계속 쓰여 오는 한편 訓蒙字會(16世紀)에서는 「안득〔非〕」이 보인다.

그러면, 우선 「不冬」의 「冬」이 어찌해서 「들」乃至 그에 가까운 音의 表記로서 採用되었던가를 살피기로 하자. 이것은 後代의 克文의 「不冬(안들)」을 前記 「안득」과의 關係에서 그대로 믿고 들어가는 演繹的인 推論에 不過한 것이나, 이 階梯를 莫說로 지나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冬」字는 聲母 t의 代表字다. 그리고, 그 訓이 「거술」이

란 點과 그 下半劃「ㄴ」이 「얼[凍] 빙·얼음[氷]빙」임을 보면 「冬」의 上半을 借字의 聲母로 삼고, 下半으로써 or, (s)ir 등의 韻母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다시 「冬」字의 字劃이 簡單하다는 것도 採用條件으로 함께 計算된 듯하다. 이것은 勿論 「冬」字 다음에 플러스連接이 올 때나, 「不冬爾」와 같이 「冬」字 다음에 接尾辭 「爾」가 올 때를 除外하고, 그 밖의 母音字가 「冬」字에 直結될 경우는 「冬」은 擧皆가 反切上字(聲母)의 表記로 나타난다.

「冬」을 小倉博士가 地名에서 調査한 것이 있는데, 이 또한 參考가 될 수 있다. 즉 京畿道 開城郡의 「白冬音里(흰돌음이)」, 慶尙北道 慶山郡의 「冬於里(들어골)」 등이다.

그런데, 「안」系 否定副詞는 결국 「不冬爾」·「不噏」·「不冬」의 語頭 訓讀系와 「安支」·「安徐」의 語頭 音讀系와로 二大別된다. 이것들이 모두 an으로 시작됨은 事實이나, *an(h)i(r)系와 *antir(i)系로 나누어 볼 때 「噏」와 「徐」가 어저하여 ir과 tir로 實現되었던가 함이 새로운 論證의 對象이 된다.

생각건대 「噏」는 「니르다」 닐다[告]에 根據하는 것 같다. 즉,

아들올 소겨 <u>닐</u> 아	〈月印釋譜 21 : 190〉
眞實로 너드려 <u>닐</u> 르거늘(眞實告汝)	〈楞嚴經諺解 2 : 66〉
法을 불어 <u>닐</u> 르시거든	〈法華經諺解 3 : 44〉
<u>닐</u> 르거늘 드로니(聞道)	〈杜詩諺解 8 : 60〉

와 같이 「告噏」(이르다·일깨우다·일려주다)의 訓이 nir이므로 그 音を 假借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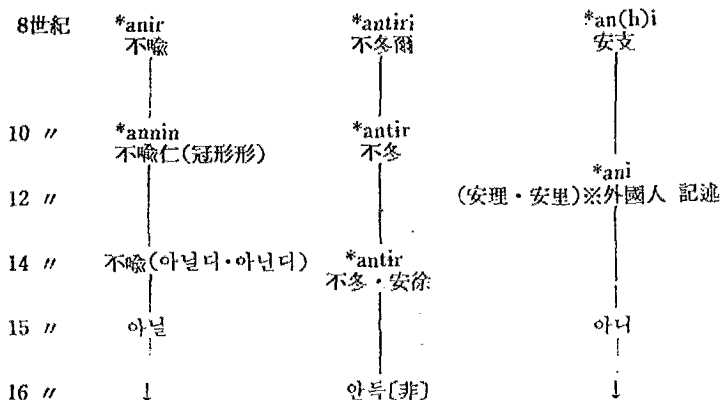
그리고, 「徐」는

<u>쥬</u> 만(機)	〈新增類合 下 : 3〉
쥬 물은 투고 빅토 기르마 빅고	〈家禮諺解 6 : 32〉
거륜 <u>쥬</u> 다(馬遲鈍)	〈漢清文鑑 433c〉
쥬 물(鈍馬)	〈同文類解 下 : 37〉
쥬 나괴(懶驢)	〈譯語類解 下 : 31〉
말 <u>쥬</u> 다(嘴遲鈍)	〈 " 補 25〉

와 같이 「遲·徐·鈍·懶」의 訓이 ?tir이기 때문에 그 音を 假借한

것이랴 보아진다.

以上을 圖表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不冬爾」의 「爾」는 接尾辭로 分析된다. 後代의 吏文에서 「不喻」를 「아닌디·아닐디」로 합은 15世紀의 名詞形 「아닐」에 「디」를 添加한 것이랴 보아진다. 動名詞 -r, -n形이 言衆에서 使用치 않게 되니, 「-디」를 文의 末尾에 癒着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後考를 要한다.

끝으로 여기 參考삼아 大明律直解의 「安徐」의 用例만을 몇 개 적어 둔다.

- 趣便以推問安徐齊(不許擅問)〈卷 1: 9〉
- 趣便以推問安徐遣(不得擅自勾問)〈 " 〉
- 過名乙良紀錄安徐爲族(不必附過)〈 " : 10〉
- 申聞安徐齊(不在上請之律)〈 " : 12〉
- 斂字安徐齊(皆免刺字)〈 " : 20〉
- 所犯人亦身故爲去等生徵安徐齊(若犯人身死勿徵)〈 " : 25〉

(6) 屋支墮米 = 오가리디매

「屋」은 鄉歌에서 主로 訓讀字 아래에 쓰였다. 즉

哭屋尸以<竹旨歌>, 白屋尸<得眼歌>

用屋尸<得眼歌>, 向屋賜尸<請佛歌>

와 같이, 本歌를 除하고는 모두 「오/우」로 實現된 듯하다. 勿論 當時의 「屋」字의 音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不明이나, 訓蒙字會 其他에 「옥」으로 된 것을 보면 亦是 「옥」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鄉歌에서 「屋」 다음에 子音이 놓일 때는 切韻法으로 「屋」의 韻尾는 省略되고 말았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字(屋邊世)」로써도 可한데, 何必이던 「屋」을 썼던가 하는 疑心이 든다. 그러나, 「屋」은 *·uk→·uk, 「字」가 *hīuag→hīu 로서 後代에까지 u를 維持하고 있음에 比해서 韻腹이 o로 變한 것은 「屋」이니만큼 當時에 이미 uk/ok으로 共用되었으리라는 推定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插入母音 「오/우」의 兩用으로는 便利한 條件을 갖춘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이지만, 鄉歌의 他處에서는 반드시 用言의 語幹과 語尾「ㄹ(尸)」을 連結하는 插入母音으로서 그 形態가 一律적이었으나, 本歌에서는 「爾」를 비록 用言의 訓讀字로 본다 하더라도 語尾「ㄹ」이 오지 않았다는 點을 보면, 여기는 무슨 다른 條件 즉 「屋」이 語頭に 입혀질 수 있는 餘地를 許容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음 「支」는 訓讀된 것으로 보인다. 「支」가 訓讀으로서 「가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訓이 「가지〔枝·岐〕」로도 通하기 때문이다. 「支=枝=岐」를 念頭に 두고 볼 때 15世紀의 다음과 같은 用例를 생각해 한다.

가린 여홀(岐灘)	〈龍飛御天歌 1:44〉
가린 길홀 맞나더 아니코저 ㅎ실씨	〈楞嚴經諺解 1:22〉
無上道에 가로몰 맞나더 아니 ㅎ며(於無上道 不遭枝岐)	〈" 10:42〉
호는 갈아날 씨니	〈法華經諺解 序:21〉
六道에 가린 든너(支離六道)	〈" 1:189〉
드리 가리여 나	〈圓覺經諺解 上:1:1:23〉
어느 가린 길히(岐路)	〈南明集諺解 1:12〉

「屋支」가 「오가리」로 입혀짐에는 一見 不合理한 느낌이 드나, 表記者의 表記意識에는 일단 「오가리<옥아리>」의 語根 「옥」이 認識된 것 같다. 그리고, 「옥」과 「가리」가 連結된 子音重復(gemination)의 音

形態를 鄉札의 所謂 添記式 方法으로 處理하여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어떠한 語根과 接尾辭와의 사이에 漠然하게나마 一種 形態素의 境界 같은 것을 看取한 듯한 感이 있다. 즉 이러한 機微는 「於冬是」(安民歌)에서도 드러난다. 「是」가 訓讀으로서 音讀字 「於冬」 아래에 連結되었다는 것이 바로 問題의 焦點이 되기 때문이다. 鄉藥救急方에는 「蒼耳」를 「升古休伊」(筆者註: 돛고마리)로, 「葛根」을 「叱乙根」(筆者註: 출불휘)로 하고 있으며, 農事直說의 「蕎麥 鄉名 木麥」(筆者註: 모밀), 衿陽雜錄의 「茂件羅粟 木麥」(筆者註: 모밀) 등은 모두 形態素의 境界를 分明히 한 表記들이다.

本歌의 「屋支」도 「屋」과 「支」와의 사이에 그와 같은 形態素의 境界를 느끼게 하는 것은 이런 式의 表記法이 이미 그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屋」字가 當時 「옥」으로 實現되었다 해도 우리는 「屋支」를 「오가리」로 읽어서 無妨하다고 본다. 現在 慶尙北道에서는 草木이 시드는 것을 「오갈든다」고들 하고 있다.

다음 「墮米」는 從來의 解釋과 같이 「墮」를 訓讀하여 「더다」의 -m 形 動名詞에 處格 「애」가 連結된 것——이미 語尾化 過程에 있는 듯——으로 보려 한다. 「米」는 訓蒙字會 以下 모두 「미」이나, 中古音이 mei(莫; 齊)[廣韻에 莫禮切]임을 보던 鄉歌의

皆里米, 處米, 有阿米, 心米, 人米, 來出米, 爲米, 去米

등은 거의 *maj로 實現되었음이 드러난다.

「오가리더다」는 現代語 「오가리들다」(慶北의 「오갈들다」와 其他 方言 「오가리저다」)로서 「植物의 잎 같은 것이 병들거나 말라서 오갈쫄글하게 된다」는 語意를 지닌다. 따라서 「오가리」는 그런 內容의 잎의 모양을 가리키는 名詞이다. 本歌에서 「墮」를 가지고 온 것도 全體的인 語意를 勘案한 나머지 「凋落」의 뜻을 表現하기 위한 措處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本 句節은 「가을(에도) 오가리들지 아니하매」로 解釋되는 터이다.

(7) 汝於多支=너다히

從來에 이 句를 「汝 於多支」로 句讀해서 「너 어더」 또는 「너 엇네」

로 解讀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의 「汝」는 信忠을 가리킴이 아니라 栢樹를 가리킨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 잠시 遺事 卷5 信忠掛冠의 前文을 적어 놓고 생각하기로 하자.

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圍碁於宮庭 栢樹下 嘗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栢樹 信忠典拜 隔數月 王即位 賞功臣 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 帖於栢樹 樹忽黃悴 王恠使審之 得歌獻之 大驚曰 萬機鞅掌 幾忘乎角弓 乃召之 賜符祿 栢樹乃蘇.

이것을 또, 增補文獻備考(卷106 樂考 17)에서는 嘗謂曰의 內容을

他日我不忘汝 汝亦不改貞操 有所負者 有如此栢

으로 縮略 說明하고 있다. 王의 말에는 어딘가 능둔 곳이 있는 것 같다. 그때는 栢樹가 어떤 영감을 지닌 것으로 인식한 모양이다. 그래서 王은 그때 그곳에 常緣不變의 栢樹가 있기에 比喻해서 달렸고, 信忠도 王의 말을 좇아서, 違約한 王의 處事를 間接的으로 栢樹에 다 부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若忘卿」·「我不忘汝」의 「汝」에 拘泥되어 「有如栢樹」를 「栢樹처럼 변하지 않겠다」고 解讀할 것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 잊어버리거든 栢樹가 있으니 栢樹는 不變의 나무인지라 거기다가 呼訴하라」는 最後의 一策을 미리 일러 준 말로서의 「有如栢樹」(栢樹가 있느니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노래의 처음부터 둘째줄까지는 信忠의 序言에 해당 하는 터이다. 「汝於多支」는 지금 信忠이가 栢樹를 보고 「자나무 너처럼 永久不變하게」라고 한 것이며, 栢樹는 作者에게 第2人稱 「汝」로 呼稱되어, 그 뒤에 오는 말의 副詞句로 삼은 것이다. 그런즉 「汝」라고 부른 主體와 「行齊」라고 한 主體는 同一인이 아닌 것이다.

「汝於多支」를 이렇게 보는 理由는 첫째로 栢樹를 約束物로 삼은 點이 重要視되어야 하며, 둘째로는 「어더」나 「엇메」로 보게 되면 「齊」가 疑問形이 되어 버리며, 셋째로 安民歌의 「君如臣多支民隱如」 같은 「다히」로의 實現을 比較의 對象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於」는 「汝」의 末音添記로 보려 한다. 「於」는 *·iag→·iä→·iö (影; 魚 開 3), 石峰千字文·新增類合 등에 「어」, 全韻玉篇에는 「어」·「오」로 되어 있다. 鄉歌에서도 *ə/*o로 實現되었다.

「多支」는 安民歌에서와 같이 「다히」로 읽어야 할 것이다. 「다히」의 15世紀 用例은 다음과 같다.

니르던 <u>알다히</u> …如來를 供養할 수 변면	〈釋譜詳節 9: 33〉
<u>實다히</u> 信할야	〈月印釋譜 9: 48〉
<u>플다히</u> 가눗다	〈南明集諺解 上: 61〉

(8) 行齊=녀저

「行」이 訓讀인은 再言할 必要가 없겠다. 「齊」는 鄉歌에서 모두 願望形으로 쓰였다.

墮支行齊<竹旨歌>, 逐內良齊<耆婆歌>, 爲白齊<禮敬歌>, 捨齊<傲悔歌>, 總結歌, 行齊<常隨歌>, 悟內去齊<普皆歌>

後代 吏文에서는 斷定形으로도 쓰이지마는 國語史에서는 願望形뿐이다. 前述한 바도 있거니와 이것을 副詞 「엇네(於多支)」를 받는 「니저?」(豈忘乎)라면 왜 「忘」字를 表記하지 않았을까? 「忘於」나 「忘丁」이 되어야 할 것이다. 「行」字가 「移勸」의 뜻을 지녔기에 「惜을 옮긴다」는 뜻으로 썼다면 모르거니와 그렇다 하더라도 「齊」는 곤란하다. 차라리 「너 어더 녀저(흔는다)」 [나를 두고 어더 가려고 하는가]의 편이 더 順坦할 것이다. 그러나, 「너 어더 녀저」 편도 「多支」가 여전히 問題되고, 「齊」가 不當하기 때문에 取할 것이 못 된다.

「齊」는 *dzer→dzei(從; 齊又齒 假開4)로서 新增類合과 全韻玉篇에 「제」로 되어 있고, 또 全韻玉篇에는 「적·즈」로도 되어 있다. 訓蒙字會에는 「齊」가 없으나 「濟」가 「제」로 되어 있고, 「齊」는 「적」로 되어 있다. 本稿에서는 일단 15世紀 願望形語尾 「-저」를 基準삼았을 뿐이다. 이 「녀저」는 麗謠의 「녀시라도 너른 흘더 녀저라」들과 酷似한 點이 있다.

(9) 教因隱=히신

「教」는 既往에 吏文을 中心해서 「이시·이사」로 分析된 바 있거니와, 그 原義가 「使·令」이므로 「히이다」에 一次的機能을 두게 된다. 그런데, 이 「히이다」의 主體가 後代 吏文의 경우 주로 「下教」에 있

있던 관계로 여기에 「시」를 添加하여 尊待를 하게 되고, 「하이다」의 「하」 代身 다른 語幹(體言 포함)을 갖고 음으로써 事實上 「이시(敎·敎是)」로 쓰게 된 것이다. 大明律直解의 用例들은 모두 그러하다.

그런데, 鄉歌의 경우는 좀더 國語史的인 面에서 再考를 要한다. 흔히 陶穀 淸異傳에 引用된 博學記의 「露曰敎水」를 「이실물」이라고 解釋하여 「敎」를 論證하고 있거니와, 博學記의

露曰迷空步障, 霜曰威風(屑?) ※威風이었다면 별문제다
 雹曰氷子, 虹曰氣母
 星曰曆金, 天河曰秋明大老

등을 보면 「曰」 以下가 國語의 發音이 아니라 漢語式 說明에 不過한 것이다. 「露曰敎水」도 따지고 보면 「하여금 물이 된 것」 즉 「물로 된 것」으로 把握될 것이지 吏讀式으로 逐字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獻花歌의 「母牛放敎遣」는 「놓(放)」의 末音 「ㅎ」과 다음 「히시고」의 頭音이 한번으로 處理된 것이 아니라 「노히시고」이다. 本歌의 경우는 「敎」 앞에 일단 文章(被引用文)이 끝났기 때문에 「히신」으로 읽어야 된다. 다만 本歌의 「히신」은 「使·令」 또는 「使爲」의 機能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獻花歌의 그것과 다른 點이다. 즉 「敎示·下敎」와 「使爲」를 겸한 것이 獻花歌의 것이라면, 이 쪽은 「敎示·下敎」의 것으로만 解釋될 것이겠다. 그러므로, 여기의 「히신」은 「히야신(하야이신)」 程度의 內容이라 믿는다.

「因」은 厶 *·iæn→·iën(影; 眞 開4)과 같은 것으로 孝經諺解·石峰千字文·新增類合·全韻玉篇 등에서 「인」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敎」가 「히시」이므로 「因」은 다만 完了相의 「ㄴ」으로 看做되며, 다음 「隱」은 *·iæn→·iæn(影; 愼 開3)으로서, 新增類合·全韻玉篇·石峰千字文 등에 「은」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다만 「因」에의 添記로 쓰였다. 「因」이 插入된 緣由는 詳考할 수 없으나, 이 때문이 拘束形(原因)임으로 해서 語意가 보다 分明하게 看取될 수 있게 하려고 한 듯한 機微가 엿보인다.

以上으로 本句節은 「너다히 너져 히신(오로)」으로 보고 「너(楸樹)처럼 變함이 없이 “늘 함께 지내고 싶구나”고 하옵신(터에)」이란 말이 된다.

(10) 仰頓隱=울워조손

「仰」은 15世紀의 「울릴다」, 「頓」亦是 15世紀의 「춧다」로서 각각 訓讀된 것이라 본다. 이 두 動詞가 合成함에는 앞의 「울릴」의 「리」은 脫落된다. 가령 15世紀語 「이울다」와 「시들다」가 合成되면 「이우시들다」〈南明集諺解 上: 62〉로 될과 같다. 이와 같이 「리」이 摩擦音이나 破擦音 앞에서 脫落이 되는 例는 贅言을 贅치 않는다. 「울워춧다」라는 合成動詞를 15世紀語에서 아직 發見 못했지만 合成의 條件은 充分하다고 본다. 「이울다」와 「시들다」와의 意味의 差를 크게 못 느끼 다시피 「울릴다」와 「춧다」의 意味도 거의 같이 쓰일 例가 많음을 보면 이 두 動詞의 合成은 쉽게 推定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울워춧다」로 看做하고, 그 語幹에 完了의 冠形詞形「-隱」이 붙은 「울워조손」으로 보고자 한다. 즉 現代語 「우리리 조아린」이다.

만일 「頓」이 過去未完了相(所謂 回想相)의 「디/다」에 關聯된 表記라면 다음과 같은 疑問을 惹起케 마련이다. 즉 表記者가 本歌의 경우에 「仰」과 「拜」와 「頓首」를 意味上的 差異가 별로 없는데도 「呑」이나 「呑隱」 또는 「如隱」 따위를 빼들리고, 何必이면 이것들과 混同視되는 「頓」으로써 表記하려고 했을 것인가 하는 點이다. 따라서 本項은 「울워춧다」乃至 「울워춧다」의 限界內에서 보아야 한다.

(11) 面矣=알피

「面」은 訓讀이되 「낯」은 아니다. 王의 낯이든 信忠의 낯이든 여기서 無意味하다. 더구나 王의 경우는 「貌史」(矣)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여기의 「面」은 現代語 「알」이라는 말로 解釋될 性質의 것이다. 說文에는 「面」을 「顏前也」 즉 「얼굴 앞」이라고 했고, 廣韻에는 「前也」라고 되어 있다. 이 밖에 「面」을 「向也」로 보기도 한다. 오늘날 「面面이」라는 말을 「앞앞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本項의 面은 15世紀의 「알」에 해당된다.

英主△ 알피 내내 붓그리리
 睿利弗△ 알피웃 브리 업슬씨

〈龍飛御天歌 60〉
 〈釋譜詳節 6 : 33〉

그리고, 朴通事諺解(重刊本 下: 20)의 「君王 앞폴 더 하야」 따위는 위의 例들과 같이 「前面」보다도 「面前」의 뜻이 짙은 말이다.

「矣」는 處格(-의)으로서 15世紀의 「알궤·남궤」·「늑척」 등과 같다. (「矣」의 字音은 19項 참조)

(12) 改衣賜乎隱冬矣也=가시샤온디아

「改衣」의 「改」는 訓讀하여 「가시다[變改]」의 語根으로 잡고, 「衣」는 語幹形成部 「의」에 해당되는 音讀字로 본다. 李朝語로는 다음과 같다.

金色잇든 <u>가시시리여</u>	〈月印于江之曲 62〉
뭇근 性이 <u>가시디</u> 아니 하야	〈月印釋譜 1: 50〉
禽호 ㅅ수뭇 <u>가시디</u> 볼 하야	〈〃 23: 89〉
맛 <u>가시요매</u> (變味)	〈內訓 1: 52〉
깃따옴 <u>가시디옷</u> 아니면	〈松江歌辭 2: 13〉

「衣」는 *·iær→·iæi(影; 微又未 開3)로서 訓蒙字會·新增類合 등에서 「의」로 表音되고 있다. 「衣」가 鄉歌에서 많이 쓰인 편이나 모두 *ij/*ej/*oj로 反映되어 있다.

다음 「賜乎隱」의 「賜」는 鄉歌에서 흔한 主體尊待의 「샤」인데, 訓蒙字會·全韻玉篇 등에는 「스」로 記錄되어 있다. 「賜」의 上古音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지금 未審한 터이나, 「易」字를 지낸 것으로 보면 「錫」字의 *diek→(jiek)→(ziek)→siek 과 같은 不規則한 音韻變化로 인한 s聲母의 獲得인 것처럼 보인다. 唐韻·集韻에 「斯義切」로 音「思」라고 記錄한 것을 미루어 보아 「思」가 *siæg→siei 이니만큼 「賜」의 上古韻母는 *iek/*iæg의 範圍에서 推定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賜」는 「스」보다도 오히려 「샤/시」에 가까운 것이었으리라는 心證이 굳어진다. Karlgren은 中古音을 sie로 하고 있다.

「乎隱」은 完了의 冠形詞形으로서 「乎」의 讀訓 「온」에 「隱」을 添記한 것이다.

「冬矣也」의 「冬矣」는 反切式 表記로서 「冬」의 t聲母와 「矣」音을 합친 「되」로 보인다. 得眼歌의 「放冬矣用屋戶慈悲也根古」에서도 「되」로 쓰였다. 現代語에서 依存名詞로 分析될 수 있는 「테」가 다른 語尾

와 連結되어서 쓰이듯 當時에 이미 語尾化 過程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여기에 다시 「也」를 덧붙여서 感嘆(여기서는 恨嘆)의 度를 더한 것이라 하겠다. 「也」는 實로 難解의 字이나 新增類合·石峰千字文·全韻玉篇 등에 「야」로 되어 있고, 鄉歌에서 거의 *ja 로 實現되었다.

本項은 결국 「變하신 것이로구로」로 解釋이 되며, 本句節은 「우리 러 조아리온 尊前에, (나의 決心도 大端했거늘 저금은 온통 아랑곳 없으사 니) (입의 마음) 變하신 것이로구나!」로 된다 하겠다.

(13) 月羅理=드리

「月羅理」는 耑婆歌에서도 「露曉邪隱月羅理」로 적혔는데, 이것은 「月」의 訓 「달」의 末音添記인 「羅」가 붙은 네에다가——「秋察羅」과 같이 ——그것이 또 主格으로 表記되자니 다시 「理」字를 덧붙인 것이다. 樂學軌範 鄭瓜亭의 「님물」과 같은 表記라든지, 後期 李朝語에서 「구름」이 「굴름」으로, 「구름미」가 「구롬미」로, 「우리」가 「울리」로 移혀졌다는 것은 모두가 形態素와 音節과의 分別을 하지 못한 데서 起因한 現象이라 하겠다.

간혹 「月羅理」를 「드리」로 處理하여 屬格으로 看做하는 일이 있으나, 鄉歌에서 「理」는 後代의 表音(訓蒙字會 其他 모두 「리」)을 기다릴 것 없이 音讀時에는 *ri 로 읽혀진 것이라고 보아 잘못이 없다.

「羅」는 廣韻에 「魯何切」, 集韻·韻會에 「良何切」이라고 했으니, 中古音 la 임은 쉽게 確認된다. 다만 國語音化된 것은 ra 였을 것이다. 여기서는 初聲切讀法으로 取扱된다.

「理」는 *liəŋ→liei(來; 止 開3)였으니 韻腹이 介母에 影響받음과 아울러 韻尾 또한 閉母音化 過程을 이미 치른 듯한 反映인 것으로 推斷된다. 그래서 li 는 國語音化한 *ri 로 보아야 한다.

(14) 影支古=얼히고

慶州方言圈에서는 「水面 따위에 物體가 그림자져서 비치는」 것을 「어린다·어리고·어리는...」과 같이 動詞 əriŋda 를 쓴다. 本項의

「影」도 「그림자져서 비치는」 것이므로 「映」과 같은 動詞로 붙어 올
 겠다. 「일히다」의 「히」는 有聲音間에서 完全히 脫落된 듯 現在는 發
 音되지 않는다. 이런 事例는 國語史에서 흔하게 보는 터이다.

따라서 「支」는 前述한 바처럼 「히」로서 補助語幹어 되고, 「古」는
 後代의 音(訓蒙字會 其他에 모두 「고」)와 같이 鄉歌에서 죄다 ko 로 音
 續되었으며, 여기서는 羅列形語尾 「고」가 된다. 이 「古」가 *kag→ko
 (見; 姥 開)임을 보면 完全한 中古音으로 實現되었음을 알 수 있다.

「影支」를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名詞「그르메」(또는「그라메」)로
 본다든가, 이 地方 方言의 「거렁지」(*거렁기)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
 령게 하면 다음 「古理因」의 處理가 어려워진다.

(15) 理因=다스

여기 「理」는 訓讀이다. 「理」가 一般的으로 「다스릴」로써 讀訓을 삼
 았는데, 여기서는 「理因」이 「다스」(「다스다」의 口變則)으로서 「다스
 려진·감잡한」으로 形容한 것 같다.

내 이 世界는 本來 제 몸고 平하야 다스려 어즈러우며 다 업거니
 (我此世界는 本自平하야 理因이 俱亡하거니)〈金剛經三家解 2: 12〉
다스려 어즈러우며 니러나며 敗亡호며(治亂與亡이)〈內訓 序: 6〉

따라서 「因」은 冠形詞形 語尾 「니」의 機能만 擔當한 것이며, 「理」
 는 意味部로 取扱된 것이다. 그러므로, 本歌에서 「理因」은 動詞로서
 가 아니라 形容詞로서 表記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表記者의 意圖에
 더 接近된다고 하겠다.

(16) 淵之叱=모셋

「淵」은 訓讀하여 「뫼」으로 읽고, 「之」는 擬似訓이긴 하나 漢語法
 에서와 같은 係屬辭(連屬辭)로서의 機能을 假借한 것이다. 그러나, 國
 語의 屬格으로만 看做하기에는 合當치 못하다. 즉 漢語에서 主格으
 로 쓰인 것은 本歌에서는 該當될 수 없고, 「南宮緡之妻之姑之喪」〈禮
 記 檀弓〉과 같은 係屬辭(國語의 屬格에 해당)와 「人之其所親愛而辟焉」
 〈大學〉과 같은 前置詞(즉 「於」也. 國語의 處格)의 用法도 함께 勸案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之」로만 쓰인 것이 아니고, 꼭 「叱」字를 곁들여서 表記한 點이 一般 「矣」字의 使用法과 相異함으로써다. 즉 「矣」는 鄉歌에서 주로 屬格 아니면 處格인데 비해 「之叱」은 이른바 處所冠形格으로 쓰인 點이 우리의 關心을 끈다. 處所冠形格이 15世紀에 「옛·옛」으로만 쓰이지 않고 「잇·잇」으로도 쓰인 것은 本項의 「모옛」亦是 「모잇」으로도 可하다는 말이 된다.

한편, 「之叱」을 屬格의 「之」와 呼氣中斷의 「叱」로 分析할 수도 있으나, 漢語에서 「之」가 지닌 主格 以外的 諸種 機能(動詞로서의 「가다」[往], 「이르다」[至], 「끼치다」[進])와 語氣詞(등)을 考慮할 때, 前記한 「於」(國語 「에」)의 機能을 看過할 수 없고, 鄉歌 表記者가 「矣」와 區別한 點 등을 綜合적으로 생각해 보면 「之叱」이 處所冠形格이었으리라는 判斷이 한층 더 굳어진다.

「之叱」의 「叱」은 또한 閉塞音 [(또는 [ʔ])]으로 實現된 것이라 본다. 講轉歌의 「法界惡之叱佛會阿希」의 것도 同類의 것이다. 그리고, 「옛(잇)」으로 實現된 「之叱」은 반드시 體言下에서 쓰임을 要件으로 하는 것 같다.

以上으로 本句節은 「달이 어리고, 잠잠한 못옛」으로 解釋이 된다 하겠다.

(17) 行尸浪 = 널 물결

「行」은 訓讀, 「尸」는 「리」, 「浪」은 訓讀. 여기 「浪」은 15世紀語로

바람 물결 소리라	〈釋譜詳節 13:9〉
물결이 갈아디거늘	〈月印千江之曲 107〉
生死 물결 가운데	〈月印釋譜 9:22〉
한 事識의 물결을 너르완느니라(起諸事識之浪)	〈圓覺經諺解 上:2:1:28〉
여름 물결 中에 이서(在灘浪中)	〈蒙山法語諺解 43〉

과 같다. 즉 「널 물결」은 「行水·流水의 波浪」을 뜻한다. 前記 「淵」은 訓蒙字會의

淵: 못, 止水而深曰淵

池: 못, 卽鑿池 又 池塘

沼: 못, 圓曰池 曲曰沼

라고 함같이 「池」와 「沼」와의 中間쯤에 해당된다. 「淵」의 字形은 「兩月變」 안에 「물이 높」을 나타낸 것이므로 물이 고였다가 흐르는 길은 곳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여기의 「行尸狼」은 이 深淵을 둘러서 가는 물결이라야 한다.

「行尸狼」 다음에는 主格이 올 수 있는 자리다.

(18) 阿叱沙=아사

「阿」는 *ar→a(影; 歌 開1)로서, 訓蒙字會 其他에 「아」로 되어 있다. 「沙」는 *sar→sǎ(疏; 麻 開2)로서, 訓蒙字會 其他에 「사」로 되어 있다. 이 두 字는 鄉歌에서도 頻出되는 字로, 모두 音讀되어 있다. 本項 亦是 音讀으로서 「앗다[奪]」의 副詞形 「아사」로 보려 한다. 「叱」의 插入은 「님물」式 表記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아사」는 現代語에서도 「앗아」로 말한다.

(19) 矣以支如支=그치디히

「矣」는 *hīag→hīei(于; 止 開3)로서 孝經諺解·全韻玉篇에는 「의」로 되어 있다. 이 字는 說文에 「語已辭也」라고 했듯이 말을 마치는 데 쓰는 字다. 즉 文末의 語助辭로서 쓰인 것이다.

鄉歌에서는 「矣」가 *ej/*aj/*ij/əj 등으로 屬格·處格·語尾·接尾辭 등의 各機能을 擔當하고 있다(風謠의 경우는 다름).

「以支」는 다음의 用例와 같이 「以支」 앞에 意味部를 두고 있음이 하나의 規範처럼 되어 있다.

窟理叱大盼生以支所音物生<安民歌>

國惡支持以支知古如<安民歌>

郎也持以支如賜烏隱<香婆歌>

祈以支白屋戶置內乎多<得眼歌>

淨戒叱主留卜以支乃遣只<餓悔歌>

그러므로, 우리는 「以支」 앞에다가 意味部를 設定해야 하는 義務

感 같은 것을 느낀다. 「矣」가 說文의 解說과 같이 語(文)末에서 斷定을 뜻하게 된 것은 「화살[矢] 이 날아가서 一定한 場所에 그치는」語源을 지니고 있다. 廣雅에서도 「矣 止也」라 한 것은 同軌의 解說이다. 訓民正音 諺解本의 「矣는 말 못는 입거지라」라고 했음도 終結助動詞와 같은 機能을 說明함이다. 이렇게 볼 때 「阿叱沙矣以支」는 「아사 그치-, 아사 따치-, 아사 버리-」의 範圍에서 생각하게 된다.

결국 「矣」는 「뫼다[止]」의 表記로 보아지매 「矣以支」는 他動詞 「그치다」의 語幹 「그치」로 읽어야 될 것이다. 「以支」는 前掲한 鄉歌의 諸用例에서와 같이 i 또는 i: 로서 先行 語幹의 末音を 支持해 주고 있다.

다음 「如支」에 대해서 알아 보자. 「如」乃至「如支」에 대해서는 일찌기 李崇寧 博士의 “tahi, tahi 考”에서, 古代土耳其語의 t̄aq 과 칼카蒙古語의 tege-와 國語의 tahi, taBi 가 同系の 것으로 李朝 以前에는 tahi 系가 優勢했던 것이라 推定되고 있다. 鄉歌에서는 「如」·「如支」·「多支」의 3種의 表記로 나타나는데, 體言下에서는 tahi 가 絶對的인음을 다시 確認케 된다.

그런데, 本項은 「矣以支如支」로서 用言의 語幹을 앞세우고 있음이 「如支」의 音形態를 再考토록 促求하고 있다. 이것은 第一次的으로 15世紀語의 「뫼(tes)」에다 발판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겠다.

百姓이 저제 가도 도다 가 <月印釋譜 2:7>
 눈모를 비 오도 혼리시고 < “ 8:94>

그리고, 16世紀語의

증성 치도시 흥터라 <續三綱行實圖 孝:10>
 상네 먹도시 <分門瘧疫方諺解 24>

의 tesi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15,6世紀 中部方言 tes, tɕsi 는 *tehi에서 口蓋音化를 겪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推測을 그대로 믿는다면 本項의 「如支」는 tehi가 되어야 하겠다.

以上으로 本項의 「如支」는 後代 tahi/teBi의 Ablaut的 變異現象을 함께 考慮하여 「디히」로 翻記하는 바이다. 「如支」는 儂悔歌에서도 쓰였다.

절구 「矣以支如支」는 「그치듯히」로서 現代語 「그치듯이」가 된다. 따라서 本句節은 「흐르는 물결이 (달그림자를) 앉아 부서 버리듯이」라는 歌意로서 앞 句節과 습하여 「平穩한 深淵에 비친 달을 지나가는 波浪이 휘저어 부서 버리듯이」로 通釋이 되어지는 것이다.

(20) 兗史沙叱=쫄사사

「兗史」은 鄉歌에서 모두 네 군데 쓰였다. 「栢史」의 경우와 같이, 「兗」을 15世紀語 「쫄」으로 訓讀할 때 「史」는 그 末音에 해당한다. 「沙」는 強勢助詞로서 機能한다. 慶尙道에서는 이 「사」를 그대로 쓰고 있다. 解釋은 「모습이야」다.

그리고, 끝의 「叱」은 플러스連接에 屬하는 것으로서, (1)項의 「物叱」의 경우와 달리 目的語 다음에 오는 것이다. 得眠歌의 「一等下叱: 放」나 兜率歌의 「命叱使以惡只」과 같다고 하겠다.

(21) 望阿乃=바라나

「望」은 訓讀이고, 「阿乃」는 音讀이다. 淸屋歌에서는 「望良古」가 두 번 쓰였는데, 여기서도 같은 形式이다. 15世紀語로는 「바라나」의 語幹 「바라」(pera)에 放任形語尾 「-나」(乃)가 붙은 것이다. 즉 「望(per)·阿(a) 乃(na)」로 分析된다. 「乃」는 *næg→nəi (泥; 海關 1)로서, 新增類合·全韻玉篇 등에는 「내」로 表音되어 있다. 鄉歌에서는 *na/*naj/*no/*noj(*naj) 등의 實現範圍를 갖고 있다. 그 中에서도 na系가 優勢한 듯 竹旨歌의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이나 請佛歌의 「必于化緣盡勳賜隱乃」같은 것은 分명한 *na였다. 漢語에서 「乃」가 曳詞(前後 말을 잇는 接續辭)이니만큼 鄉歌의 用法도 語尾에서는 接續法의 形態로 나타난다. 「바라나」의 現代語는 「바라나」이다.

(22) 世理都=누리도

「世理」의 「世」는 訓讀이며, 「理」는 音讀이다. 즉 「理」는 「누리」의 末音節을 表音한 것이다. 「都」는 同一補助詞 「도」로 音讀되었다. 體音下에 쓰인 것으로는 祭妹歌의 「音隱去內如辭叱都」가 있다.

(23) 之叱逸烏隱第也=지즈른다

本項은 모두 音讀된 것이라 본다. 「之」는 *tiag→tʃre(照; 之 開3)로서 新增類合·石峰千字文·全韻玉篇 등에 「지」로 되어 있다. 「叱」은 唐韻·集韻·韻會 등에 「尺栗切 音鴉」로, 廣韻에는 「昌栗切」로, 다시 集韻·韻會에 「戚悉切, 音七」이라 했으니, 「七」(*ts'iet→ts'iet)과 같이 보아도 無妨한 것이다. 더우기 三國遺事에 보이는 「居柒夫或云荒宗」이라든가 三國史記 地理志에 보이는 「居柒山郡(東萊郡)」·「上柒縣(尙質縣)」, 그리고, 鄉藥救急方의 「叱乙根(葛根)」 등은 *cir 乃至 *c'ir 程度の 推定限界를 示唆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의 「之叱」이 앞에 나온 「淵之叱」의 경우와 別途取敎을 받아야 할은 「之」가 語頭에 놓여 있는 點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之叱」로 分節되는 것이 아니고, 「之叱」의 「叱」이 그 다음 字 「逸」과 合해서 一種의 反切式 構造를 形成하고 있다는 것에 留意해야 하기 때문이다.

「逸」은 「佚」과 같이 *djet→jiēt(喻; 質 開4)로서, 同語異體字다. 大邱 琵琶山 「安逸庵」一帶를 「안지랭이」라고 名稱함은 「逸」의 古音を 維持하고 있는 有力한 證據로 잡혀진다. 新字典(崔南善)에서 「佚」을 「逸」과 同字로 規定하고, 「일·딜·딜」 등 3種의 表音を 하고 있음은 바로 「逸」의 上古音의 系列을 아직도 一部에 保有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鄉歌에서 「逸」이 *tjɔr/*tir의 音讀으로 나타남도 이에 符合되는 터이다. 如何間 「叱逸」은 鄉藥救急方에서의 「叱乙」과 恰似한 構造다. 表記者의 이와 같은 處事는 「叱」만으로도 cir을 나타낼 수 있지만 「叱」이 一般的으로 s, t, ㅈ 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逸」까지 合해서 「지즐」을 「之叱逸」로 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逸」은 여기서 r을 당당했다고 하겠다.

「烏」는 *ag→a→o(影; 模 開1), 訓蒙字會·新增類合·全韻玉篇 등에 「오」로 되어 있다. 鄉歌에서도 모두 *o로 實現되었다. 本項에서 「烏」는 插入母音이 된다.

「第」는 本歌에서만 쓰였는데, 訓蒙字會·新增類合·全韻玉篇 등에 「테」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感嘆語尾(-나)의 一部로 音讀된 것이 라 보아진다. 따라서 「第也」는 反切式 構造로 보려 한다.

「지졸다[壓]」의 15世紀 用例는 다음과 같다.

有情을 <u>지졸우</u> 며	〈圓覺經諺解 上: 1: 2: 86〉
나모 돌해 <u>지졸어</u>	〈救急簡易方 1: 78〉
平床을 <u>지졸</u> 듯호도다(欲壓床)	〈杜詩諺解 初: 16: 44〉
돌려 볼 <u>지즈름</u> 마티 호야	〈牧牛子修心訣 25〉

그리고, 語尾 「-나」는 다음 例를 參考할 수 있다.

오직 聖人스 <u>마리신더</u>	〈永嘉集諺解 下: 36〉
슬프다 빛 <u>사르비</u> 마물 아니 <u>볼호는더</u>	〈南明集諺解 下: 30〉
설운다 이게 죄인이로써이다	〈恩重徑諺解 17〉
從容호다 이 氣像 <u>關達호다</u> 더 境界	〈松江歌辭 1: 7〉

以上으로 本項은 「(짓)놀렸구료」로 解釋이 된다. 따라서 本句節은 「世上조차도 (나를) 짓눌러 버린 것이로구료」라는 恨嘆의 말이 되어 「世情도 야속하다」는 內容으로 읽어진다.

※ 맨앞의 歌詞은 각 귀전의 끝과 귀절 중간의 卍호 部分이 原典의 隔字에 해당됨.

(1972. 3. 31)